

읽기 전략을 이용한 집중형 읽기에 관한 연구

서영미

(인천대학교)

Suh, Youngmee. 2004. A Study of an Effective Teaching Plan for Intensive Reading Clas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2(1), 23-41.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cent research tendency of teaching English reading material and to demonstrate a teaching plan for the intensive reading less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concept for reading, reading models and reading strategies. After investigating the important reading strategies in foreign language reading and presenting the result of a survey on use of reading strategies by sophomores in University of I, w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English reading teacher should learn the various and effective reading techniques and strategies using context and text organization. Teachers should also teach the specific reading techniques to the students to use them according to the reading circumstance and the reading object.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find a teaching model for intermediate-level students keeping balance on vocabulary, grammar, and reading strategies since reading strategies hardly used by the students with inadequate vocabulary and grammar.

주제어(Key words): 읽기 과정, 집중형 읽기, 읽기 전략, 읽기 단계, 읽기 교수, 읽기 전략 수행

1. 머리말

최근의 외국어 읽기 모형에서 읽기란 언어적 자원 뿐 아니라 비언어적인 자원을 동원하여 의미를 구축하는 과정이며 독자의 역할도 소극적인 것이 아닌 적극적인 역할자이다. 또한 외국어 읽기 수업에서는 언어자체 교육 뿐 아니라 읽기 기술 배양을 동시에 목표로 해야 한다는 읽기 수업의 이중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즉 어휘와 문법습득과 같은 언어적 측면과 더불어 유추하는 기술과 문맥을 활용한 추측 등의 다양한 읽기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읽기 교육에 통합되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읽기 교육의 추세를 바탕으로 첫째, 외국어 읽기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해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헌 연구들을 종합해 보고자 한다. 둘째, 읽기 과제에 대한 전략 중심적 접근법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집중형 읽기 수업의 바람직한 읽기 교수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셋째, A반(상급반), B반(중급반), C반(초급반)으로 나누어 영어 읽기 수업을 받고 있는 I대학교 2학년 학생들이 영어 읽기를 할 때 읽기 전략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읽기 전략의 사용이 읽기 능력과 관계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그룹이 읽기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영어 읽기에 대한 이론적 흐름을 조사하고자 문헌 연구로서 읽기 개념과 읽기 과정을 고찰해 보겠다.

2. 이론적 배경

2.1. 읽기 개념

읽이란 단순히 읽기 자료에서 정보가 추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자의 선행 지식이 활용되고 그 지식이 새로운 읽기 자료의 내용에 의해 수정되고 확대되는 과정이다. 즉 읽기는 독자와 읽기 자료 내용과의 대화로 독자는 글과 상호작용하며 작가가 의도하는 의미를 재구성하는 능동적인 역할자로서 작용하게 된다(Goodman, 1970). Coady(1979)에 의하면 읽기 과정에서 독자가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하다. 즉 학습자의 내재적인 배경 지식(background knowledge), 일반적인 지적 능력인 의미형성 능력(conceptual abilities), 그리고 읽기의 하위 구성 요소인 처리 전략(process strategies)이 상호 작용하는 것이 읽기 과정이다. 구체적으로 개념 능력은 일반적인 인지 능력을 의미한다. 처리 전략은 일반적인 언어 처리 기능으로서 언어적, 통사적 또는 의미적 정보 등을 포함한다. 배경지식은 독자의 언어적 지식의 결함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¹⁾ 예를 들어, 초보적인 독자는 처리 전략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숙달된 독자는 추상적인 개념 능력에 관심을 두거나 자신의 배경 지식을 더 많이 활용한다.

1) Coady는 선행지식에 관해서 보다는 과정전략에 관해서 좀 더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 최근의 연구들은 선행지식의 내용이 기존의 문자언어의 지식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읽기가 이해의 적극적인 과정으로 정의되면서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글을 읽기 위해서는 문맥 내에서의 추측과 지문에 대한 추론 등의 전략들을 배워야 한다는 필요성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지문에의 다양한 효과적 접근 방법, 읽기 전 활동, 단어 또는 구문 구조들을 다루도록 도와주는 전략들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연구들(Barnett, 1988; Carrell, 1985; Grabe, 1991 등)이 등장하게 되었다.

2.2. 읽기의 과정

2.2.1. 상향식 과정(Bottom-up Process)

상향식 읽기 모형은 구조주의 언어학 이론을 바탕으로 읽기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초기 읽기 연구의 기초가 되었다(Barnett, 1989). 이 모형에서는 제 2 언어 읽기를 해독 과정으로 간주하여 글자나 단어를 이해의 첫 단계로 보았고, 읽기에서 어휘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독자는 지면에 나타난 글자, 단어, 구 또는 문장을 통해 의미를 세워가며 글을 처리한다. 글의 작은 단위에서 출발하여 점차 다음 단위가 첨가되어 마침내 의미를 갖게 되는 선형적인 과정으로 읽기를 분석하고 있다. 초보 독자의 읽기는 상향식 모형에 크게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문법 번역식이나 청화식 교수 방법에 의한 읽기 지도 대부분도 상향식 모형에 의존한다.

2.2.2. 하향식 과정(Top-down Process)

하향식 읽기 모형은 인지주의 언어학을 바탕으로 읽기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읽기에 작용하는 인간 내면의 영향을 연구하여 읽기는 끊임없이 의미를 세워 가는 반복적 순환 과정이고 읽기 과정에서 시각 정보보다 배경 지식이나 두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여기서 배경 지식이란 읽기 전에 학습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말하며, 이 지식의 구조인 선형 지식(schema)이 없이 문자만으로는 의미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즉 하향식 과정은 읽기 과정을 선형적으로 보아 상향식과는 반대로 상위의 정신 단계에서 시작하여 글 자체로 이동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독자는 사전 학습이나 인생 경험을 토대로 한 일반적인 정보나 정보의 유형에 대한 지식을 사용하여 지적인 추측을 하게 된다(Goodman, 1970). 또한 독자

는 글에 나타난 모든 정보를 읽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만 추출하여 추측을 통해 자신의 과거 경험과 연결시켜가며 의미를 확장시켜 나간다.²⁾

상향식 읽기 방법과 하향식 읽기 방법을 비교하자면, 상향식 읽기 과정은 글의 내용이나 구조에 대한 가설을 세우도록 해주며, 하향식 읽기 과정은 이해에 있어서 모호성을 해결해 주고 올바른 해석을 선택하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상향식 읽기 방법은 철저한 이해의 장점이 있는 반면 읽기 기술 자체를 외면할 우려가 있다. 또한 하향식 읽기 방법은 읽기 기술의 개발을 기대할 수 있으나 잘못하면 부정확한 이해 내지 전혀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텍스트를 끝내는 수가 있다. 따라서 실제 교실 수업에서는 이 두 가지 교수 학습 활동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상호작용에 근거한 읽기 교수 방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2.2.3. 상호작용 과정(Interactive Process)

읽기 과정은 상향식 과정과 하향식 과정의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론으로서 읽기 과정이란 점점 큰 단위로 의미를 세워 가는 상향식 과정과 배경 지식이나 선형 지식을 사용하여 의미를 추측하는 하향식 과정이 계속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즉 상호작용 읽기 과정은 독자와 글의 상호 작용을 이론화시킨 것으로 글의 의미는 독자의 기존 배경 지식과 문어로 제시된 정보 및 문맥이 서로 역동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형성되어 간다.³⁾ 이 읽기 과정에서는 독자를 적극적인 참여자로 보고 있으며, 독자의 모든 지식과 사전 경험이 이해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해 과정에서 독자의 지식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역동적인 것이므로 주어진 글에 대한 해석은 독자의 배경이나 관점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2.2.4. 스키마 이론(Schema Theory)

1980년대 중반 우리 나라에 도입된 스키마 이론에 의하면, 학습이란 기

2) 구체적으로 독자는 표집(sampling), 예측(predicting), 검사(testing), 확인(confirming), 수정(revising)의 반복 과정을 통하여 의미를 예상하고 정보를 수집한다.

3) Rumelhart(1980)에 의하면 담화로부터 입력된 부분적인 언어 자료로 독자는 전적인 내용이 어떨지 가설을 세우고 담화를 읽어 가면서 자신이 세운 가설을 검증하고 기존 가설을 확정하거나 새로운 가설로 수정하는데, 이 과정에 바로 상향식 과정과 하향식 과정이 동시에 개입된다고 한다.

존의 지식구조에 새로운 정보를 도식화하는 것이다(Ausubel, 1963). 스키마란 독자의 머리 속에 계층적으로 구조화된 배경 지식이나 선행 지식을 말하며 독자는 이것을 근거로 먼저 예측을 한 후 자료를 읽어 가면서 이 예측을 확인한다.⁴⁾ 즉 자료는 하나의 자극일 뿐이고 의미는 독자가 구성한다는 것이다.⁵⁾

최근에는 스키마 이론과 상호작용 이론을 중심으로 읽기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⁶⁾ 즉 텍스트의 이해는 관련 스키마가 적절히 활성화되어야만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다양한 읽기 전략의 사용이 필요하며 교사는 독자들이 효과적인 읽기 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한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읽기 전략교육의 성공적인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Carrell, 1985; Carrell, Pharis & Liberto, 1989; Ryu, 1997등).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다음 절에서는 집중형 읽기를 교수할 때 학생들에게 훈련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읽기 전략을 소개하고, 읽기 전략과 읽기 활동을 바탕으로 한 집중형 읽기 수업의 교수 방안을 제시해 보겠다.⁷⁾

4) 일반적으로 스키마는 다음의 세 단계를 거쳐서 수정되어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 (i) 첨가 (accretion): 새로운 정보는 기존의 스키마를 변경시키지 않고 기존의 스키마의 상황 안에서 기억된다.
- (ii) 조정 (tuning): 새로운 정보나 경험은 기존의 스키마에 완전히 수용되지는 않으나 약간의 변화를 준다.
- (iii) 개조 (restructuring): 기존의 스키마의 조정 정도로는 새로운 정보를 수용할 수 없을 때, 새로운 스키마를 창조하게 된다.

5) 스키마는 내용 스키마(content schema)와 형식 스키마(formal schema)로 구분되는데 내용 스키마는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기존 지식으로 보다 일반적인 세상 지식을 말한다. 형식 스키마는 구조적인 것으로 글이나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법, 즉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자가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담화 구조나 규약에 대한 지식이다.

6) 스키마/상호작용 이론과 더불어 외국어 읽기 분야의 새로운 이론적 흐름은 위에서 언급한 심리언어적 모델과 읽기 과정은 독자의 메타인지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메타인지 이론을 들 수 있다.

7) Brown(2001)에 의하면 교실에서의 읽기 활동 유형은 크게 확장형 읽기(Extensive Reading)와 집중형 읽기(Intensive Reading)로 분류된다. 확장형 읽기는 다소 긴 본문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소설, 잡지의 기사 등과 같은 긴 글을 즐기면서 읽는 방법을 말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집중형 읽기에서는 짧은 글을 읽어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이다.

3. 읽기 과제에 대한 전략 중심 접근법과 집중형 읽기 교수방안

3.1. 읽기 과제에 대한 전략 중심 접근법

읽기 전략이란 의미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다. 즉 읽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자가 사용하는 계획이나 방법으로써 문맥을 통하여 단어의 의미를 추측하는 일, 그 추측을 평가하는 일, 동족어나 동족어군을 식별하는 일, 훑어 읽기, 특정 정보 검색하기, 예측하기, 일반적인 지식을 활성화하는 일, 추론하기, 글의 주제를 세부 사항들과 구분하기 등이 포함된다. 영어 읽기에 쓰이는 전략들을 간추려 보자면 다음과 같다.

- 목적을 갖고 읽기(*Having a purpose*): 학생들이 읽기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텍스트로부터 무엇을 알아내야 할지를 마음 속에 간직하도록 한다.
- 개관하기(*Previewing*): 글을 빨리 읽어보고 글의 주제, 중심사상, 글의 구성을 파악해 보도록 한다.
- 훑어읽기(*Skimming*): 글을 전반적으로 훑어본 후 무엇에 관한 것인지 중심 사상을 알아내도록 한다.
- 특정정보검색하기(*Scanning*):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글 전체를 빠르게 읽어 내도록 한다.
- 묶기(*Clustering*): 하나의 단위로서 단어들을 묶어서 읽도록 한다.
- 나쁜 습관 피하기(*Avoiding bad habits*): 단어 하나 하나를 읽는 것과 같은 나쁜 습관을 없애도록 한다.
- 예측하기(*Predicting*): 어떤 내용일지 예측하게 한다.
- 능동적으로 읽기(*Reading actively*): 질문을 한 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읽기가 되도록 한다.
- 유추하기(*Inferring*):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은 생각들을 알아내도록 한다.
- 장르 알아보기(*Identifying genres*): 텍스트의 전체 구조 패턴을 알아내도록 한다.
- 문단 구조 알아보기(*Identifying paragraph structure*): 연역적 패턴 또는 귀납적 패턴 등과 같은 문단의 구조를 알아내도록 한다.
- 문장 구조 알아보기(*Identifying sentence structure*): 복잡한 문장의 주어

- 와 주동사를 구별해 내도록 한다.
- **연결 장치 알아보기(Noticing cohesive devices)**: 대용사의 올바른 지시 대상을 알아내도록 하고, 접속사의 기능을 구별하도록 한다.
 - **모르는 단어 유추하기(Infering unknown vocabulary)**: 접두사, 접미사, 어근과 같은 단어의 부분뿐만이 아니라 문맥을 이용하여 모르는 단어의 뜻을 알아내도록 한다.
 - **비유어 알아보기(Identifying figurative language)**: 비유어와 환유어의 쓰임을 이해하도록 한다.
 - **배경지식 사용하기(Using background knowledge)**: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사용하도록 한다.
 - **문체와 글의 목적 알아보기(Identifying style and its purpose)**: 글 쓴 이의 긴 문장 또는 짧은 문장 사용과 같은 서로 다른 문체를 사용하는 목적을 이해하도록 한다.
 - **평가하기(Evaluating)**: 비판적으로 글을 읽은 후 텍스트 내용에 대해 진리치(진위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 **정보 통합하기(Integrating information)**: 중요부분 표시하기 또는 받아적기와 같은 기술을 사용해서 텍스트 내에서 생각이 발전되고 있는 방법을 따라가 보게끔 한다.
 - **다시보기(Reviewing)**: 글을 다시 읽고 그 내용을 요약하게끔 한다.
 - **발표하기(Reading to present)**: 글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한 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그 내용을 발표하게끔 한다.

위의 여러 가지 읽기 전략 중 특히 훑어읽기(Skimming)와 특정 정보 검색하기(Scanning)가 여러 대학교의 교양영어 수업시간에 연습되는 주된 읽기 전략이다. 훑어읽기란 주어진 글의 내용에 대한 요점을 신속히 알아내기 위한 것으로 요지를 알기 위하여 전체 텍스트를 가로질러 빨리 시선을 옮기면서 읽는 것이다. 즉 짧은 시간 안에 전체의 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택적으로 띄어 읽으면서 요점이나 주제를 빨리 파악하는 읽기 전략이다. 훑어읽기는 책의 전체 내용을 예측하기 위하여, 찾으려는 정보가 책 속에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시간이 부족한 경우 전체 대의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반면에 훑어읽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읽는 방법이 특정 정보 검색(찾아읽기)이다. 이 방법은 찾고자 하는 정보를 신속히 알아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관계없는 부분은 무시하고 빨리 읽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날짜, 숫자, 장

소 등의 특정 정보를 파악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관련되는 특정 사실의 결정, 특정 사실에 나타나 있는 소재 확인과 해당 특정 정보의 신속한 이해 등이 포함된다. 특정 정보 검색의 방법은 찾고자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고 읽기, 찾고자 하는 정보 형태를 미리 결정하기와 무관한 내용을 빨리 지나가기 등이다.

이와 같이 읽기 전략의 교수가 읽기 수업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면 구체적으로 집중형 읽기 교실에서는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다음 절에서는 읽기 전략을 사용하는 집중형 읽기 수업의 교수방안을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로 나누어 제시해 보고자 한다.

3.2. 집중형 읽기의 단계별 읽기 교수방안

교사는 읽기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다양한 읽기 활동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러한 읽기 활동은 읽기 전(pre-reading), 읽기 중(while-reading), 읽기 후(post-reading)의 읽기 세 단계를 고려해야 한다. 각 읽기 단계에서 교사가 해야 할 역할과 읽기 활동들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읽기 전 단계는 읽게 될 단락에 대한 개념적 준비 단계라 할 수 있다. 교사는 학생의 지적 호기심이나 새로운 사실에 대한 욕구를 자극시켜 학생의 경험을 불러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즉 교사는 글의 내용과 관련된 배경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이 적절한 배경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만약 학생이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해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읽기 전 단계에서 선행 활동으로 쓰일 수 있는 유형으로는 그림을 통한 예측 활동, 이야기 망을 통한 예측 활동, 어휘 제공하기, 질문하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전 읽기 활동들은 이용 가능한 스키마를 상당히 높여 줄 수 있으며, 적당히 어려운 읽기의 경우 사전 읽기 활동은 학생의 이해를 매우 향상시킨다. 즉 적절한 선행 활동을 사용하면 학생의 흥미를 유발할 수도 있고 이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읽기 전 단계가 끝난 후 뒤따르는 읽기 중 단계는 학생의 이해하는 것을 도와줄 질문들을 제시하여 학생이 읽는 동안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 읽기 중 단계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읽기 전략을 향상시켜주며 외국어에 대한 통제력을 길러주고 문제가 되는 단락을 이해하도록 한다. 더 나아가 교사는 학생이 글쓴이의 의도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며 글의 구조

를 파악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 때 글의 전반적인 이해에서 출발하여 단락, 문장 또는 단어와 같이 점차 작은 단위로 옮겨가야 하는데, 그 이유는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단어와 같은 작은 단위의 이해를 도와주기 때문이다.

읽기 후 단계는 교사가 학생으로 하여금 많은 읽기 후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배운 것을 연습(rehearse)하고 강화(consolidate)하도록 도와 줄 수 있는 단계이다. 즉 읽은 내용을 강화시키거나 정리하고 글의 내용을 학습자의 지식, 흥미 또는 견해와 관련짓는 것이다.

읽기 후 활동으로는 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에 대한 이해 질문 활동, 단어 의미 추측 전략과 단어 분석 전략을 사용하여 모르는 단어들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끔 하는 단어 활동, 문법 구문 활동, 그리고 요약하기 등이 있다.⁸⁾

위에서 언급한 읽기 전략을 읽기 단계와 결합시켜 집중형 읽기 수업에서 쓰일 수 있는 수업방안을 하나의 예로 보인 것이 다음의 표 1이다. 즉 읽기 전략을 사용하는 집중형 읽기 지도 교수를 읽기의 세 단계를 고려하여 각 단계에서 해야 하는 교사의 역할과 학생의 역할, 읽기 활동, 그리고 읽기 전략을 하나의 예로 제시한 것이다.

8) 이해 질문 활동은 다시 문자적 질문(literal level question), 추론적 질문(inferential level question), 일반적 질문(general/global question), 구체적 질문(specific question), 거시질문(macro question), 미시질문(micro question)으로 세분화 될 수 있다. 교사는 읽는 글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질문 유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표 1. 집중형 읽기의 교수 방안

| | 읽기 전 | 읽기 중 | 읽기 후 |
|----|--|---|--|
| 교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소개하기 · 글의 내용에 대한 질문하기 · 어휘 미리보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의 구조 이해시키기 · 독해 전략 교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확인하기 · 요약하기 · 과제부여 |
| 학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의 내용 예견하기 · 글의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기 · 주제에 관련된 단어 생각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묵독(Silent Reading) · 문맥을 통한 단어의미 유추하기 · 글의 구조 이해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에 대한 이해력을 묻는 질문에 답하기 · 요약하기 |
|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보고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기 · 제목보기 · 주제에 관련된 가능한 단어를 예측하고 단어 목록 만들기 ·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주제에 대한 사진 질문하기 · 훑어읽기와 특정 정보 검색하기 · 문화적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묵독 · 문맥을 통한 단어의미 유추하기 · 글의 구조 이해하기 · 예측한 상황의 진위 여부를 검토하기 · 답화 표지어 구별하기 · 구체적인 정보찾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에 대한 이해력을 묻는 질문하기 · 글의 내용을 다시 말해보기 · 주제문이나 중심 생각을 찾기 · 연습문제를 통한 어휘확대 · 새로운 구문구조와 절을 학습하기 · 세부사항 찾기 · 요약하기 · 토론하기 |
| 전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관하기 · 예측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훑어읽기 · 특정정보검색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시 보기 |

요약하자면 교사는 읽기 전 단계에서 글의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스키마(배경지식)를 활성화시킨다. 읽기 중 단계에서는 자연스러운 읽기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읽기 후 단계에서는 글에 대한 이해를 확인함과 동시에 심도 있는 이해 또는 차시 읽기 학습에 필요하다고 예측되는 내용을 지도한다. 즉 교사는 읽기 수업을 세 단계로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읽기와 관련된 특정 기술(skill)과 전략(strategy)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9)

외국어 읽기에 대한 이와 같은 새로운 시각에 기초한 변화에 따라 최근에는 다양한 읽기 기술과 읽기 전략을 연습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교재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으며,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해석보다는 핵심주제를 파악하고자 하는 읽기 교육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또한 읽기 전략과 읽기 성과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보여준 연구들(Song, 1999; 송, 1998등)도 이러한 읽기 전략 중심의 읽기 교육의 효율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읽기 전략을 사용한 영어 읽기가 권장되고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의 또 다른 관심사는 연구자의 강의 대상 학교인 I대학교 학생들은 어느 정도로 위에서 언급한 읽기 전략들을 활용하면서 영어 읽기를 하고 있는지, 즉 실제 어느 정도로 읽기 전략을 사용한 영어 읽기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양영어를 수강하고 있는 I대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읽기에 대한 설문을 실행하였는데 조사 내용과 그 결과를 다음절에서 살펴보겠다.

4. 수준별 영어 읽기 전략 수행에 대한 연구

4.1. 연구대상

영어로 된 텍스트를 읽을 때 읽기 전략을 사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003학년도 2학기 교양영어를 수강하고 있는 I대학교 2학년 학생들 중 A반의 인문계열, 공학계열, 사회과학계열 84명, B반 172명, C반 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¹⁰⁾

9) 그러나 물론 읽기 수업의 세 단계 접근은 기계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학습자의 동기 유발이 반드시 읽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읽기 교사는 학생의 언어 지식과 세상 지식을 중시하고 이를 활용하며 참여, 동기 그리고 진행을 위한 토대로 세 단계 수업을 사용해야 하며 일관성이 있는 방법으로 기능의 통합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10) I대학교는 교양영어 수강자 학생들을 전학기말에 치루어진 토익성적을 근거로 A반(상급반), B반(중급반), C반(초급반) 세 단계의 수준으로 나누어 반편성을 한다. 이러한 (전학기 성적을 고려하지 않고) 토익시험점수에만 의존한 구분법이 학생들의 정확한 영어실력을 나타낸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고 실제 학생들의 영어 수준과 다를 수도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염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준별 학습내용 방식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 설문을 실행하였음을 밝혀둔다.

4.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에 의해 작성된 설문지(총 14문항)를 사용하였다. 1번부터 4번까지는 글을 읽기 전의 읽기 전략의 사용, 5번부터 11번까지는 글을 읽는 중의 읽기 전략의 사용, 12번부터 14번까지는 글을 읽은 후의 읽기 전략 사용을 묻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3개의 항목--그렇지 않다(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을 때), 보통이다 (50% 정도일 때), 그렇다 (50% 이상일 때)--으로 구성되어 있다.

4.3. 연구 결과 및 분석

읽기 전의 읽기 전략의 사용을 묻는 문항들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읽기 전의 읽기 전략 사용

| 문항내용 | | 구분 | | |
|------------------------------|-------|-----------|------------|-----------|
| | | 응답인원(%) | | |
| 1. 읽기의 목적을 간직한 채 글을 읽는가? | Level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 | A | 17(20.2%) | 52(61.9%) | 15(17.9%) |
| | B | 38(22.0%) | 110(63.9%) | 25(14.5%) |
| | C | 12(15.0%) | 53(66.3%) | 15(18.8%) |
| 2. 알아내야 할 구체적인 정보를 미리 결정하는가? | Level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 | A | 9(10.7%) | 45(53.6%) | 30(35.7%) |
| | B | 27(15.6%) | 91(52.6%) | 55(31.8%) |
| | C | 11(13.8%) | 48(60.0%) | 21(26.3%) |
| 3. 글을 읽기 전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의 사용 | Level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 | A | 12(14.3%) | 54(64.3%) | 18(21.4%) |
| | B | 26(15.0%) | 103(59.5%) | 44(25.4%) |
| | C | 6(7.5%) | 50(62.5%) | 24(30.0%) |
| 4. 글을 읽기 전 글의 내용을 추측하는가? | Level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 | A | 11(13.1%) | 42(50.0%) | 31(36.9%) |
| | B | 17(9.9%) | 99(57.6%) | 56(32.6%) |
| | C | 4(5.0%) | 33(41.3%) | 43(53.8%) |

1번부터 4번까지는 글을 읽기 전 읽기 전략의 사용에 관한 질문으로 읽기의 목적을 간직한 채 글을 읽으려 하는지, 찾아야 할 구체적인 정보를 미리 결정하는지, 글의 주제에 대해 기존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생각해 내는지, 그리고 글의 내용을 추측해 보는지에 대한 것이다. 결과는 반에 관계없이 50%가 넘는 학생들이 ‘보통이다’라고 대답하였다.

5번부터 11번까지는 글을 읽으면서 읽기 전략을 사용하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3. 읽기 중의 읽기 전략 사용

| 문항내용 | | 구분 | | |
|-----------------------------------|-------|-----------|------------|------------------|
| | | 응답인원(%) | | |
| 5. 글의 내용과 논리성을 점검하는가? | Level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 | A | 11(13.1%) | 38(45.2%) | 35(41.7%) |
| | B | 47(27.2%) | 87(50.3%) | 39(22.5%) |
| | C | 12(15.0%) | 46(57.5%) | 22(27.5%) |
| 6. 배경지식을 사용해 글을 이해하는가? | Level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 | A | 4(4.8%) | 50(59.5%) | 30(35.7%) |
| | B | 11(6.4%) | 83(48.0%) | 79(45.7%) |
| | C | 4(5.0%) | 36(45.0%) | 40(50.0%) |
| 7. 참고자료를 사용하면서 글을 읽는가? | Level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 | A | 12(14.6%) | 31(36.9%) | 41(48.8%) |
| | B | 32(18.5%) | 67(38.7%) | 74(42.8%) |
| | C | 8(10.0%) | 31(38.8%) | 41(51.3%) |
| 8. 글의 내용에 대해 장면을 상상하거나 그림을 연상하는가? | Level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 | A | 7(8.3%) | 40(47.6%) | 37(44.0%) |
| | B | 19(11.0%) | 82(47.4%) | 72(41.6%) |
| | C | 6(7.5%) | 37(46.3%) | 37(46.3%) |
| 9. 작자의 의도나 태도를 파악하면서 읽는가? | Level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 | A | 7(8.3%) | 48(57.1%) | 29(34.5%) |
| | B | 21(12.1%) | 107(61.8%) | 45(26.0%) |
| | C | 5(6.3%) | 48(60.0%) | 27(33.8%) |
| 10. 논리적 구성을 생각하면서 읽는가? | Level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 | A | 16(19.0%) | 55(65.5%) | 13(15.5%) |
| | B | 39(22.7%) | 111(64.5%) | 22(12.8%) |
| | C | 15(18.8%) | 50(62.5%) | 15(18.8%) |
| 11. 문맥을 통해 모르는 단어의 뜻을 추측하는가? | Level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 | A | 5(6.0%) | 29(34.5%) | 50(59.5%) |
| | B | 8(4.7%) | 89(52.0%) | 74(43.3%) |
| | C | 7(8.8%) | 33(41.3%) | 40(50.0%) |

글을 읽기 전과 마찬가지로 글을 읽는 동안에도 배경지식의 사용, 참고

자료의 사용, 작자의 의도나 태도 파악, 논리적 구성 파악, 그리고 문맥을 통한 단어의 뜻 유추하기는 50% 정도의 학생들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참고자료를 사용해 글을 읽는가라는 질문에는 A반, B반, C반에 관계없이 '그렇다'라고 응답을 한 인원이 가장 많았다. 또한 문맥을 통한 단어의 뜻을 유추하는가라는 질문에는 A반과 C반이 '그렇다'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한편 글을 읽은 후의 읽기 전략의 사용여부와 그 정도에 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읽기 후의 읽기 전략 사용

| 문항내용 | | 구분 | | |
|----------------------------------|-------|-----------|------------|-----------|
| | | 응답인원(%) | | |
| 12. 글을 읽은 후, 예상했던 것이 맞았는지 점검하는가? | Level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 | A | 12(14.3%) | 42(50.0%) | 30(35.7%) |
| | B | 19(11.0%) | 101(58.7%) | 52(30.2%) |
| | C | 9(11.7%) | 43(55.8%) | 25(32.5%) |
| 13. 글을 읽은 후, 내용을 요약하는가? | Level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 | A | 6(7.1%) | 51(60.7%) | 27(32.1%) |
| | B | 16(9.4%) | 99(57.9%) | 56(32.7%) |
| | C | 3(3.8%) | 59(73.8%) | 18(22.5%) |
| 14. 글을 읽은 후, 읽기 전략을 점검해 보는가? | Level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 | A | 24(28.9%) | 46(55.4%) | 13(15.7%) |
| | B | 38(22.2%) | 119(69.6%) | 14(8.2%) |
| | C | 26(32.5%) | 49(61.3%) | 5(6.3%) |

글을 읽기 전과 읽기 중 단계와 마찬가지로 글을 읽은 후 예상했던 내용을 점검하는지, 내용요약을 해 보는지, 사용한 읽기 전략을 점검해 보는 지를 묻는 내용에 역시 A반, B반, C반 모두 '보통이다'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I대학교 학생들은 영어 읽기를 할 때 읽기 전략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겠다.

한편, 읽기 전략의 사용이 읽기 능력과 관계가 있는지, 만약에 상관관계가 있다면 어떤 그룹이 읽기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지 알아보려고 수준별로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의 읽기 전략의 사용을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수준별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의 읽기 전략의 사용

| 종속변수 | | 응답인원 | 평균 | 표준편차 | 유의확률 |
|------|---|------|------|------|------|
| 읽기전 | A | 84 | 2.67 | .78 | .085 |
| | B | 172 | 2.66 | .73 | .056 |
| | C | 80 | 2.85 | .82 | .092 |
| 읽기중 | A | 84 | 3.01 | .70 | .076 |
| | B | 170 | 2.85 | .66 | .050 |
| | C | 80 | 3.05 | .67 | .076 |
| 읽기후 | A | 83 | 2.71 | .80 | .088 |
| | B | 168 | 2.66 | .79 | .061 |
| | C | 77 | 2.63 | .69 | .078 |

위의 표 5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I대학교 학생들의 읽기 전략의 사용과 읽기 능력과는 별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Song (1999)와 송(2000)의 연구결과에서 읽기 전략의 사용과 읽기 능력은 관계가 있다는 것과 대조적인 결과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연구자가 행한 설문 조사의 결과는 읽기 전략의 사용과 읽기 능력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뒷받침하기보다는 오히려 읽기 전략의 사용은 학생들이 기초적인 영어능력(문법과 어휘)이 입문단계(threshold level)를 넘어서야만 가능한 것이라 한 연구(Choi, 1995; Lee & Shallert 1997) 결과를 뒷받침한다. 즉 비록 모국어 읽기에서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라 하더라도 해당 외국어능력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외국어 읽기 상황에서는 모국어에서와 같은 동일한 전략의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같은 읽기 전략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결과를 뒷받침해 준다. 송(2000)의 연구에서 언급되었듯이 이러한 해석은 외국어 읽기에서는 모국어 읽기와는 달리 읽기 전략의 사용이 읽기 성과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곧바로 향상된 읽기 성과로 연결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즉 영어 읽기의 경우 읽기 성과가 영어 언어능력 등 모국어 읽기 상황과는 다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국어 읽기 상황과는 다른 요소의 영향 중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어휘와 문법이 될 것이다.¹¹⁾ 결론적으로 읽기

11) 심사자 한 분은 어휘와 문법 이외에도 또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읽기 전략의 활

전략이 읽기 능력과 별다른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어휘와 문법에 대한 지도가 읽기 전략 지도와 함께 읽기 수업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¹²⁾

5.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읽기 개념, 읽기 과정, 읽기 책략, 읽기 활동 등 외국어 읽기 교수의 최근의 흐름을 고찰해 보고 이를 반영하는 집중형 읽기 수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읽기 수업을 의미를 추구하는 읽기 활동을 통한 내용이해와 문제해결 과정으로 보는 이론의 흐름에 맞추어 영어 읽기 교사들은 다양하고도 효과적인 읽기 기술과 전략을 익히고 효과적 교수방법을 교육받아야 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교사들은 각 읽기 상황의 과제나 목적에 맞춘 다양하면서도 구체적인 읽기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 여러 효과적인 읽기 기술을 가르침으로써 학습자들이 수행과제나 목적에 따라 자신의 읽는 방식을 수정·조정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읽기 기술의 효용성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들을 인지하고 내용이해와 문제해결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한 의미추구적 읽기 활동을 학생들에게 권장하는 것과 더불어 교사들이 숙지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학습자의 외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읽기 전략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읽기 능력을 갖추지 못한 대학생 학습자들에게는 어휘와 문법에 대한 지도도 읽기 전략 지도와 함께 다루어져야 하며, 더 나아가 어휘·문법 지도와 읽기 전략 지도가 함께 보완적으로 쓰일 교수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급반 학생들마저도 외국어 읽기 전략의 활용이 읽기 능력과 별다른 관계가 없는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문법과 어휘를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보완하여 체계화된 읽기 전략을 가지고 외국어 읽기를 지도함으로써, 읽기 능력이 어느 정도 어떻게 향상되는지 그 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향후 연구과제로 삼으려 한다.¹³⁾

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문화적 배경도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함.

12) 수능시행 이후 학생들의 급격한 문법능력의 하락을 고려하면 정확성 및 문법 능력의 향상을 추구하는 교육이 영어 읽기 전략 교육과 맞물려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3) 이러한 논의점을 지적해 주신 심사자 분께 감사드린다.

참고문헌

- 서영미. (2002). 교과내용학으로서의 영어학과 영어교육학의 연계성 연구. *영어학연구* 7, 23-38.
- 송희심. (1998). 대학수학능력고사에 따른 영어읽기 방식과 영어읽기에 대한 메타인지의 변화. *영어교육*, 53(4), 265-290.
- 송희심. (2000). 한국의 영어 읽기교육 연구에 대한 고찰. *영어교육*, 55(4), 367-388.
- 이혜란. (1991). 독해 과정 교수법. *응용언어학* 4, 3-43.
- 정길정. (2000). *영어 독해 교육*. 서울: 경진문화사.
- 채이형, 한대숙, 서영미. (2003). 영어강독의 효과적인 교수 방안. *어문학연구* 18, 143-169.
- Ausubel, D. (1963). *The psychology of meaningful verbal learning*. New York: Grune and Stratton.
- Barnett, M. A. (1988). Reading through context: How real and perceived strategies use affects L2 comprehension. *Modern Language Journal*, 72, 150-162.
- Barnett, M. A. (1989). *More than meets the eye: foreign language reading theory in practic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rown, H. D. (2001). *Teaching by principles*. (2nd Ed.). White Plains, NY: Addison Wesley Longman.
- Carrell, P. L. (1983). Some Issues in studying the role of schemata, or background knowledge, in second language comprehension. *Reading in a foreign language, Vol. 1/2*, 87-92.
- Carrell, P. L. (1985). Facilitating ESL reading by teaching text structure. *TESOL Quarterly*, 19, 727-752.
- Carrell, P., Pharis, B. G., & Liberto, J. C. (1989). Metacognitive strategy training for ESL reading. *TESOL Quarterly*, 23, 646-678.
- Choi, Y. H. (1995). Transfer of literacy skills from Korean to English. *English Teaching*, 50(4), 71-96.
- Coady, J. (1979). A psycholinguistic model of the ESL reader. In R. Mackey, B. Barkman & R. Jordan (Eds.), *Reading in a second language*. 5-12. Rowley, MA: Newbury House.
- Goodman, K. S. (1970). Reading: A psycholinguistic guessing game. In

- Singer, H. and Ruddell, R. B. (Eds.), *Theoretical models and processes of reading*. Newark, DE: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 Grabe, W. (1991). Current development in second language reading research. *TESOL Quarterly*, 25, 375-406.
- Irwin, J. W. (1986). *Teaching reading comprehension process*.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 New Jersey.
- Larsen-Freeman, D. (2000). *Techniques and principles in language teaching*. (2n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ee, J. W., & Schallert, D. L. (1997).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L2 language proficiency and L1 reading ability to L2 reading performance: A test of the threshold hypothesis. *TESOL Quarterly*, 31, 713-739.
- Rumelhart, D. E. (1980). Schemata: The building blocks of cognition. In R. J. Spiro, B. C. Bruce & W. F. Brewer (Eds.), *Theoretical issues in reading comprehension*. 33-58. Hillsdale, NJ: Erlbaum.
- Ryu, K. (1997). Referential strategy training for second language reading comprehension of Japanese texts. *Foreign Language Annals*, 30, 84-97.
- Song, M.-J. (1999). Reading strategies and second language reading ability: The magnitude of the relationship. *English Teaching*, 54(3), 73-95.

서영미

402-749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177번지

인천대학교 어학원

전화: (02) 2687-8971

이메일: ymsuh@incheon.ac.kr

Received: 30 December, 2003

Revised: 7 February, 2004

Accepted: 13 February, 2004